

프랑스 개최 신한류 축제 열기 일본 · 중국에서도

전북대, 26일까지 일본 나가사키 · 중국 연태 찾아 축제 연이어 진행... 공연 · 체험 등 다채

프랑스에서 신한류 축제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던 전북대학교가 그 열기를 일본과 중국으로 확산시킨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와 중국 연태를 찾아 신한류 축제를 연이어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와 중국 연태에서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의 흥과 소리를 주요 테마로 하는 '한판'이라는 주제로 전북대 8개 학과(문헌정보학과, 사학과, 건축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통계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한국음악학과) 24명의 학생이 준비하고 있다.

먼저 체험 프로그램으로 '와자지결 장마당'(웃가게, 다과방), '하하호호 모임마당'(알까기, 소리맞추기), '재잘 재잘 놀이마당'(떡치기, 격과 체험)으로 나뉘어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공연 프로그램은 '깨우는 소리'(태권무), '울리는 소리'(가야금, 장구, 피아노), '통하는 소리'(K-POP 공연, 난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 이미지를 극대



전북대가 10일부터 26일까지 중국과 일본에서 신한류 축제를 연이어 진행한다. 전북대, 신한류사업단이 출국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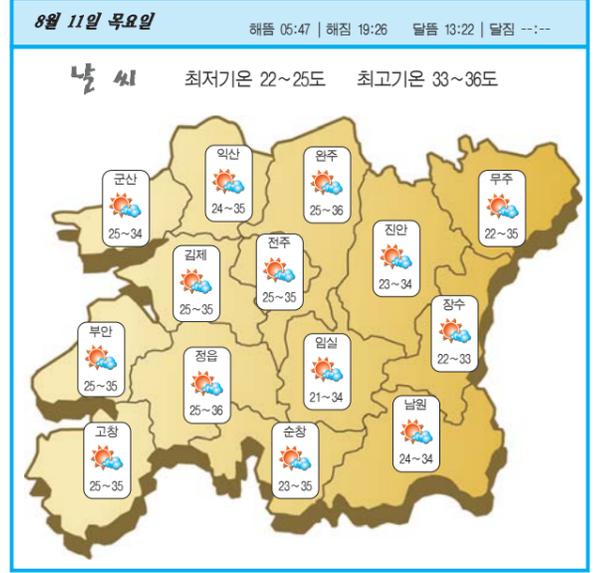
화하기 위해 포스터에서 '한판'이라는 한자 표기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여 태극기를 상기시키도록 했고, 해태를 친근한 캐릭터로 표현했다.

또한 해태가 쓰고 있는 상모에서 뻗어 나오는 선은 '흥'과 '소리'의 이미

지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에 맞도록 해태의 색을 다르게 디자인했다.

김건 사업단장은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일본과 중국의 특성을 파악해 직접 한류 콘텐츠를 기획, 실행하는 소리

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 축제를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외국에 보여줄 수 있고, 학생들 역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힘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대, 레슬링팀 전지훈련 중심지로

150명 이상 선수들 합동훈련

전주대 류인택체육관이 국내·외 레슬링 팀들의 전지훈련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주대 레슬링부는 지난 7일부터 일본 가나가와대학, 자위대팀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고 17일부터는 국군체육부대, 수원시청을 포함한 실업팀과 한국체대 등 10여개 대학팀, 150명 이상의 선수들과 8월 말까지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대비강화훈련으로 경기 성향과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선수들과 연습경기를 펼치며, 선수들 각자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에 모든 레슬링 팀들이 선호하는 훈련지이다.

또 전주대는 수준 높은 훈련장 시설로 인해 많은 팀들이 훈련하기 원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박진규 전주대 레슬링부 감독은 "다른 어느 때 보다 전주대 레슬링부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며 "이번 합동훈련이 전라북도레슬링 발전을 위한 발판이돼 전국체육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레슬링부는 제3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우승 3명, 준우승 2명, 3위 2명을 배출하는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전주시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은 정부가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에너지사용을 제한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한데 따른 것으로 시 청사를 비롯해 산하 전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해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전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 온도 28℃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실내 냉방온도(26℃이상)를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전환된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한전의 협조를 받아 건물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재 기자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전주 만들기 앞장

전주시보건소, 만 60세 이상 대상 연중 치매검진

전주시보건소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전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센터장 김경숙)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중 치매검진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치매상담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의심 증상(최근일의 기억장애,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 등)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병·의원 등 29개소를 치매검진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상담센터는 관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꾸준히 방문해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복

용해야하는 만 60세 어르신에게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에 해당되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8만514명) 중 치매추정 인구수는 7327명(치매유병률 9.1%)이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도 7월말 현재 869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무엇보다도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부터 반드시 가까운 치매검진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치매상담센터는 치매 예방교육과 치매무료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보급사업, 치매환자 사례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치매상담센터(281-6291~5, 62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중국 절강공대 원광대 방문

중국 항주에 있는 절강공업대학 학생들이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에서 하계 단기 한국문화체험을 마치고 돌아갔다.

지난 1일 입국한 한국문화체험단은 학생 74명과 교수 4명 등 총 78명으로 구성됐으며, 7박 8일 동안 원광대와 익산, 군산, 부안 등지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국 학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원광대의 깊은 역사를 알게 됐고, 첨단 과학과 선진기술, 3D 프린터 기술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원광대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 비전대, 해외어학연수 실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필기시험과 영어면접을 통해 선발된 22명의 학생들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 미국 괄주립대학에서 실시된 하계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했다.

비전대는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학생들의 토익 스피킹 능력을 높여 국내는 물론 해외 취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학생 200여명을 선발해 미

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어학연수와 현장실습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재학생을 비롯해 수시모집에 합격한 예비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연수와는 별도로 4주간의 토익특공대 합숙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영수 총장은 "해외어학연수 및 합숙교육은 짧은 시간 동안 몰입도를 높여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에서 70~80%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NH농협은행부안군지부장 유금용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순식
변산농협조합장 신영철
계화농협조합장 이석훈
하서농협조합장 김형식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같이의 가치 NH 농협